

한국국제정치학의 새로운 방향모색

河 英 善*

<차례>

- | | |
|-----------------------|-----------------|
| I. 문제의 제기 : 허학에서 실학으로 | IV. 새로운 분석틀의 정립 |
| II. 한국국제정치학의 빈곤 | V. 끝맺는 말 |
| III. 한국국제정치학의 당면과제 | 부 록 |

I. 문제의 제기 : 허학에서 실학으로

조선조 후기에 접어들어 나라가 점차 어려워지는 속에서 다산 정약용은 그의 “오학론”이나 “속유론” 등에서 당시의 주도적 학풍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 훈고학, 문장학, 과거학, 술수학의 허학성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그 시대가 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

그러나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 땅에 충분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우리는 개화기, 일제기, 그리고 분단된 해방의 시기를 맞이함으로써 실학의 필요성이라는 숙제는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졌다.

해방이후 40년이 지난 최근에 들어서서 국내 사회과학계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작에서 찾아내고 또 풀어 나가자는 바람이 점차 강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양식을 국내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기반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점차 커져 가는 한편 기존의 한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불신 내지는 비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서울大 社會大, 國際政治學

(1) 丁若鏞, 與猶堂全書(一), 詩文集 卷十一, 十二 (서울: 景仁文化社刊行本, 1970), pp. 58-62, 83. 번역으로는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다산시문집 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115-126, 171-172를 참조할 것.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기왕의 한국국제정치학이 극소수의 노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우리의 문제를 남의 시각에서 보아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심하여야 할 것은 또 하나의 허학이 아닌 진정한 실학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이 곧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국제정치 변수 자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기왕에 각 시기마다 여러 형태로 작용하였던 국제체제의 영향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 사회과학계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지나친 국제정치적 해석에 대한 반발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실학의 정립을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두·리의 삶과 국제체제의 상호 역동성과 지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II. 한국국제정치학의 빙곤

우리에게 있어 나라 밖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 땅에 국가가 형성된 이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정치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구미중심의 근대 국제정치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의 출발은 19세기 중엽 이후였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국제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이르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는 대한제국의 멸망과 일제의 암흑기를 겪게 된다.

국제정치의 커다란 영향 속에서 1945년에 분단된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다시 한번 국제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신천지”를 비롯하여 “개벽”, “민성”, “민심”, “신세대”, “대조” 등에 많은 시사해설류들의 글들이 발표되고 또한 이와 연관된 외국 서적들이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²⁾

(2) 현재까지 한국국제정치학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것으로는 손제석, “국제정치학의 연구와 대학교육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 2집 (1965), pp. 102-111 :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 관계 분야의 기간서적 목록,”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1965), p. 290-295 : 김계수, *한국정치*

그러나 이와 같은 시사해설 수준의 국제정치적 관심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정치를 분석하여 보려는 노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방면의 최초의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를 한국국제정치학의 제 1기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으로서는 일종의 완제품 수입시기로서, 동주 이용희 교수의 예외적인 노력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구미의 교과서 차원의 국제정치학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남의 문제를 남의 시각에서 보는 국제정치학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 대한 최초의 국내 교과서로서는 1954년에 나온 조효원 교수의 「국제정치학」을 들 수 있다.⁽³⁾ 그러나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서문에서 저자가 미국의 대학에서 교재로 연구하던 참고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부분만을 체계화하여 본 것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 방면에 관한 본격적인 저서라기 보다는 구미 국제정치학 교과서들의 발췌 번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 국제정치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저서로서는 1955년에 출판된 동주 이용희 교수의 「국제정치원론」이 최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는 서문에서 그 자신의 문제 의식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본래 내가 품게 된 정치학에의 관심은 우리 겨레가 왜 이렇게도 취약하나 하는 의문을 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 정치학은 내가 살고 있는 고장 또 내가 그 안에 살고 있게 되는 나라의 운명과 무관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런데 나는 왜 우리 겨레가 이다지도 취약하나 하는 문제를 헤아려 보는 동안에, 취약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동양전체가 그러하게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알려면 불가불득 구주에서 발단한 근대정치의 성격과 내용을 알지 않으면 아니되는

학(서울 : 일조각, 1969) : 박아영, “한국에서의 국제정치학연구—평가와 제의,” *한국정치학회보* 제12집(1978), pp. 129-136 : 이상우, “한국국제정치학의 정립을 위하여—소망스러운 발전 방향과 과제의 확인,” *한국정치학회보* 제12집(1978), pp. 137-148 : 김학준, *한국정치론*(서울 : 한길사, 1983) : Chang Dal-joong, “The Current State of Political Science Research in Korea,” *국제정치논총* 제24집 1호(1984), pp. 207-219.

(3) 조효원, *국제정치학*(서울 : 문정각, 1954), 본 논문의 부록 참조.

(4) 이동주, *국제정치원론*(서울 : 장왕사, 1955), 본 논문의 부록 참조.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구주정치 및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
제정치의 연구는 곧 우리의 현상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의문은……종전의 일반정치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역사적인 국제적 불평등 위에 수립된 민주정체와 그것을 유
형화하여 엮어 놓고 일반타당이라고 일컫는 정치학을, 국제적인 폐지배지
역의 학도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공부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
가. ……현실적인 서양정치학은 그것이 내세우는 듯하는 사실인식의 효용보
다는 오히려 서양적인 정치가치를 체계화하는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은 나에
게 일대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리하여 나는 종래의 연구방법을 다시 고
치어, 내대로 「장소의 논리」라고 부르는 새 견지를 취하게 되었다. 무엇이
나하면, 정치학이 성취한 일반유형, 그리고 서양의 정치가치가, 개별적 지
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이를 일으키며 또 어떠한 「권위」적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검색하자는 것이었다.』

동주 이용희 교수는 이와 같은 독특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자기나름의 국
제정치론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1962년에 출판된 「일반국제정치학
(상)」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나갔다.⁽⁵⁾ 이 연구는 현재까지 한국국제정치학
계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보자
면 첫째, 국제정치학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국제정치의 개념이 추구되고,
둘째, 국제정치의 논리적 기반으로서 국제정치의 권역성과 전파의 문제를
제시하고, 세째, 근대국제정치의 유형적인 양태를 설정하고, 네째, 현대국
제정치, 곧 세계정치의 역사적 성격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양상에 대한 연
구와 그것이 점차로 변이해 가는 모습을 논구하였다.

그러나 동주 이용희 교수의 이러한 노력들은 이 시기에 있어서 극히 예외
적인 것이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서 출판된 조재권 교수의 「국제정치학」
이나 최종기 교수의 「국제관계론」은 구미 국제정치학 교과서를 요약 소개하
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당시에는 보다 일반적인 것이었다.⁽⁶⁾

한국국제정치학은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 제 2 기로서 구미유학 등에 힘
입어 보다 세련된 남의 시각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려는 일종의 수입대체

(5)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서울: 박영사, 1962), 본 논문의 부록 참조.

(6) 조재권, 『국제정치학』(서울: 법문사, 1963); 최종기, 『국제관계론』(서울: 박영사,
1966), 본 논문의 부록 참조.

산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상준 교수의 「국제정치이론」이나 이상우 교수의 「국제관계이론」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미의 다양한 분석기법과 틀이 대거 수입되어 국내의 국제정치학계에 소개되었으며⁽⁷⁾ 동시에 이를 사용하여 우리의 국제정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들이 눈에 띠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한계는 첫째로 구미 국제정치이론의 수용과정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석시각이나 방법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소개하기보다는 구미 국제정치학계에서 유행하는 이론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경향이 강했다. 둘째로 구미의 분석틀을 빌려서 우리 현실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분석틀들이 우리의 현실 분석에 적합한가의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우리 현실을 이러한 분석 기법과 틀에 맞추어 보려는 양상을 띠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제3기를 맞이하였는데, 이제 까지의 시각이 지나치게 우리의 문제와 동떨어진 구미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의존하여 왔으므로 이에서 벗어나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3세계에서 개발된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속이론을 비롯하여 제3세계와 연관된 정치경제론들이 활발히 소개되었으며 또한 수정주의적 시각을 원용한 한국현대사연구가 점차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제3기의 노력이 제2기와 비교하여 시각의 근거를 달리한다는 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문제를 위해서 시각을 조절하기보다는 시각을 위해서 문제를 조절함으로써 가공의 현실을 재구성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들로서는 우리의 현대사에 대한 지나친 강국중심의 국제정치적 시각을 벗어나기 위하여 키밍즈의 수정주의적 시각에 따른 해방정국의 분석이나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에 따른 1970년대의 유신체제의 분석은 기왕의 이 시기의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온 국내 사회경제의 변수를 중심으로 이 시기를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체제적 변수의 상대적 과소 평가로 인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7) 김상준, *국제정치이론 I, II* (서울: 삼영사, 1977, 1980);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갈등원인과 질서유지* (서울: 박영사, 1979), 본 논문의 부록 참조.

따라서 한국국제정치학계는 성급한 기존 분석틀의 원용 이전에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 자체로 돌아가서 이에 대한 초보적인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남의 분석시각이나 역사적 체험을 조심스럽게 수용하는 제4의 시기가 절실히 요청된다.

III. 한국국제정치학의 당면과제

허학이 아닌 실학으로서 한국국제정치학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제정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번째로 중요한 국제정치 문제는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양식이 19세기 이전에는 화이사상을 기반으로 한 중국적 세계질서, 19세기 이후에는 서구의 근대국가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 20세기 초반에는 일본의 식민지체제, 1945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의 압도적인 영향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1945년 이후의 현대사를 중심으로 보면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전후 국제체제는 해방, 분단, 군정, 한국전쟁, 휴전, 군사동맹체제의 형성 및 군사·경제원조 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추세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로 제2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질서의 주도국가로서 등장한 미국이 상대적으로 군사 및 경제력의 압도적 우위를 잃어가는 속에서 아세아에 있어서는 월남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동북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한·일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국교정상화라는 모습으로서 나타난다. 둘째로 1960년대 초반이래의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국내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체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

1960년대 말이래 시작된 미·소간의 긴장완화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한반도에 미치는 국제체제의 영향에 새로운 모습을 가져다 주었다. 이에 따라서 1970년대 초반에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루어 졌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북방정책, 남북대화, 자주국방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위로부터의 동

원체제인 유신체제를 모색하게 되고 이의 부작용으로서 한·미관계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으로는 1960년대 이래의 산업화 과정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보다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사회경제적 변수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은 국제체제와 국내체제의 동시적 그리고 복합적 영향 속에서 이루어져 나갔다.

1970년대 말에 들어서서 국제체제는 신냉전체제로 복귀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80년대의 한반도는 이러한 신냉전의 영향권 속에 들어갔으며 한·미관계는 개선되어 나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국제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긴장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국내 사회 경제 변수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여 이제는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체제와 국내체제의 보다 균형된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국제체제는 비록 그 영향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1940년대나 1950년대의 압도적인 것에서부터 1960년대 이래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일면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것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기왕에 이러한 “밖”的 영향에 대한 우리 나름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대한정책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계를 보여왔다. 우리의 삶의 양식을 규제하는 국제체제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제체제의 기본구조 및 성격, 그리고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국제체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령 1945년 이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를 중심으로 하여 짜여진 국제정치, 군사, 경제, 문화체제가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남북분단체제 및 양국의 국내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제정치문제는 남북한분단체제가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분단의 역사는 1945년의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스스로의 정치·사회세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의 주도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

하면서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신탁통치 형태를 통한 공동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점차 차가워져 가고 한편 남북한의 국내 정치·사회세력들 간의 이해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은 각각 단독정부를 설립함으로써 남북한분단체제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1948년의 남북협상은 커다른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시도였으며 1950년의 한국전쟁은 남북한분단체제를 전쟁체제로 고착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에도 남북한관계는 군사적 대결의 논리가 핵심을 이루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치열한 군비경쟁을 지속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국내 및 국외의 여건변화에 따라 남북한은 관계개선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단기적으로 군사대결의 논리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노력은 커다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980년대를 맞이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남북한분단체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커다란 진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형성 전개되어 온 남북한분단체제는 지난 40년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으나 이 문제가 가지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과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남북한분단체제의 형성 전개에 대한 역사적 연구 이외에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 방면에 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는 시급한 실정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과제로 우선 중요한 것은 첫째, 남북한분단체제사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서술이 아닌 체계적인 복합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분단체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남북한의 군비경쟁에 대한 객관적인 요인 및 영향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남북한 정치사회의 군사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째, 전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남북한분단체제에서 평화의 논리가 지배하는 남북한통일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복합전략이 국제체제와 국내체제의 변화와 연계되어 모색되어져야 한다.

한국국제정치학이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이와 같은 국제체제 및 남북한분단체제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

여 어떻게 대응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19세기 중반이래로 유럽중심의 국제체제가 전세계로 확장됨과 함께 이러한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근대국가의 건설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도 19세기 중반 이래 새로운 국제체제의 영향 속에서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한 폭력적, 물적, 이념적 기반의 창출이 모색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이에 실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국제체제와 더불어 남북한분단체제의 영향까지 충첩된 속에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지난 19세기 중반 이래 “안”의 내실화를 위해 “밖”的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숙제의 하나였다.

이러한 숙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기간동안에 좁게는 국가기구들이 한국의 교정책적인 차원에서 넓게는 그밖의 정치사회세력들이 “밖”的 영향에 대한 대응양식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⁸⁾ 다음으로 우리의 국가기구 및 정치사회세력들이 우리의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밖”的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국제정치학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국제체제의 영향에 대한 대응양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내체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삶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동안의 상대적으로 커다란 국제체제적 영향을 받아오는 속에서 국내체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서 국내체제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또 한차례의 혼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국내체제적 영향은 적절한 비중의 중요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8) 한국의 교정책에 관해서는 이호재, 한국의 교정책의 이상과 현실—이승만 외교와 미국(1945~1953), 제3증보판(서울: 법문사, 1980);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Youngnok Koo and Sung-joo Han (eds.), *The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1945년 이후를 중심으로 본다면 1960년대 이래로 국가기구적 차원에서 군과 관료의 역할이 증가하고 1970년대 이래로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형성된 새로운 사회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국내체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밖”의 영향에 대한 대응양식에 있어서 개방과 폐쇄라는 두 개의 대조적 형태를 갖게 된다. 국가기구의 담당세력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제체제에 대해 개방적인 대응양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반면에 새로운 사회세력은 현재의 국제체제적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폐쇄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국제체제적인 영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양식에 미치는 국내체제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체제가 우리의 국제정치적 대응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의 국가기구 담당세력, 사회세력이 제기하는 대응양식의 적합성을 우리 나름의 근대국가의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비교 검토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국제정치학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과제는 국제체제, 남북한분단체제 및 국내체제의 상호작동 속에서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근대국가 건설의 모색에 있다.

IV. 새로운 분석틀의 정립

새로운 실학으로서의 한국국제정치학은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하여 우리의 역사적 체험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어떠한 분석틀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분석틀을 모색하는 이 단계에 와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된 기존의 분석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서서 국내외의 국제정치학을 훑어보면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세계체제연구, 군비증강연구, 제3세계의 군사화 연구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연구이다.

첫째, 국제체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데에 있어서 부분적

으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세계체제연구이다.⁽⁹⁾ 세계체제연구는 왈리스타인을 중심으로 미국사회학계의 일부에서 1970년대 이래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국제정치학계의 모델스키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체제연구그룹과 대화 내지는 논쟁이 전개됨으로써 보다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기존의 구미국제정치학에 비하여 새로운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째로 왈리스타인이나 모델스키를 포함한 세계체제연구그룹들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석단위에 있어서 세계체제의 중요성이다. 물론 기왕의 국제정치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라는 분석단위를 넘어서는 국제체제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국제체제는 아직까지는 국가라는 단위체가 독자적인 행동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환경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세계체제분석을 시도하는 연구자들은 세계체제를 하나의 독립된 분석단위로서 취급하고 이

(9) 세계체제분석 중에 모델스키의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George Modelska, "Long Cycles of World Leadership: An Annotated Bibliography," *International Studies Notes of the Studies Association*, Vol. 10 (3) (Fall 1983), pp. 1-5를 참고하고 왈리스타인의 입장を取り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왈리스타인 자신의 저작들인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1974);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The Modern World System II: Mercantilism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1600~1750* (New York: Academic, 1980); Samir Amin, Giovanni Arrighi, Andre Gunder Frank, I. Wallerstein, *Dynamics of Global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2); Wallerstein, *Historical Capitalism* (London: Verso Editions, 1983)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The States,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과 둘째로 Wallerstein이 소장으로 있는 Fernand Braudel Center의 계간지인 *Review* (Summer, 1977~)와 세째로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System Annuals*, Vol. 1-8 (Beverly Hills: SAGE, 1978~1985)과 네째로 Explorations in the World Economy: Publications of the Fernand Braudel Center 중에 특히 Vol. 1인 Terrence K. Hopkins & I. Wallerstein, (eds.), *World System Analysis: Theory and Methodology* (Beverly Hills: SAGE, 1982)를 참고할 것. 두 접근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William R. Thomson (ed.), *Contending Approaches to World System Analysis*, (Beverly Hills: SAGE, 1983); Thomson, "The World Economy, the Long Cycle and the Question of System Time," in Pat McGowan & Charles W. Kegley (eds.), *Foreign Policy and the Modern World System*, (Beverly Hills: SAGE, 1983), pp. 36-62; Thomson, Christopher Chase-Dunn & Joan Sokolovsky, "An Exchange on the Interstate System and the Capitalist World-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7 (3) (Sep., 1983), pp. 341-374를 참고할 것.

러한 세계체제의 기본구조 및 지향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들이 세계체제의 분석단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국가, 계급 등의 기준 분석단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이러한 분석단위에 가려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부분을 드러내어 “밖”的 내용을 보다 종체적 그리고 구조적으로 밝히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최근의 세계체제 연구는 세계체제, 국가, 사회세력의 상호작동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¹⁰⁾

둘째로 세계체제연구자들은 공시적인 차원에서 국제정치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려는 노력과 함께 통시적인 차원에서 세계체제가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는가를 실증적인 작업을 통하여 추적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윌리스타인의 경우에는 15세기 중반이래 오늘날까지 네번째의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주기는 패권의 상승, 장악, 성숙, 하강이라는 네 국면으로 구분된다. 한편 모델스키의 경우에는 16세기 초반부터 다섯번째의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주기는 세계대

<표 1> 세계체제의 역사적 시기구분

Wallerstein			Modelske		
시기	구분	패권국가	시기	구분	세계대국
제 1기	1450~1600/50		제 1기	1518~1608	포르투갈
제 2기	1600/50~1730/50	네덜란드	제 2기	1609~1713	네덜란드
제 3기	1750/1815~1917	영국	제 3기	1714~1815	영국
제 4기	1917~	미국	제 4기	1816~1945	영국
			제 5기	1946~	미국

자료 : William R. Thomson, "The World-Economy, The Long Cycle and the Question of World-System Time," in Pat McGowan and Charles W. Kegley, Jr., *Foreign Policy and the Modern World-System* (Beverly Hills: SAGE, 1983), pp. 37-43.

(10) Robert 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0(2), (1981), pp. 126-155; R.W. Cox, "Gramsci, Hegemon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 Essay in Method,"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2(2), (1983), pp. 162-175; Michael Banks, "The Inter-Paradigm Debate," in Margot Light and A.J.R. Groom, (eds.), *International Relations: A Handbook of Current Theory* (London: Frances Pinter, 1985), pp. 7-26.

국, 비정통화, 비집중화, 전쟁의 네 국면으로 구분된다. 이들 두 사람의 장주기 분석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자면 알러스타인은 세계체제의 변화를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기반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모델스키는 세계정치체제의 변화에 보다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체제연구가 앞으로 세계정치, 군사, 경제, 문화체제의 상호연계성과 동시에 세계체제, 국가, 사회세력의 상호작동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틀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세계체제가 주변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에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군사대결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남북한분단체제의 이해를 위해서는 군비증강연구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것을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비증강에 대한 기왕의 연구작업은 리차드슨의 고전적 연구이래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간단하게 구분하여 본다면 군비확장에 있어서 외재적 요인을 강조하는 쪽과 내재적 요인을 강조하는 쪽으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대조적인 시각을 종합하여 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재적 요인을 강조하는 리차드슨의 군비경쟁모델은 두 개의 적대국가 또는 동맹이 상호간에 전개하는 군비경쟁을 상정하고 이러한 증강추세를 국가 간의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¹¹⁾ 이에 반해서 쟁하스는 군비증강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군비증강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향유하는 군부, 산업, 관료, 과학기술자 등의 연합세력의 영향, 군사기술의 동인, 군사증강을 밀반침하는 현대 전략개념 등을 지적하고 있다.⁽¹²⁾

군비증강에 대한 이러한 대조적 설명에 대해서 이를 종합화함으로써 하나의 복합모델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최근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들을 들자면 첫째, 러시트는 군비증강의 요인으로서 국제적 영향, 강대국의 영향권에서의 분쟁, 국가간의 경쟁, 그리고 관료정치와 군산

(11) Lewis F. Richardson, *Arms and Insecurity* (Pittsburgh and Chicago: Boxwood and Quadrangle, 1960).

(12) Dieter Senghaas, *Gewalt, Konflikt, Frieden* (Hamburg: Hoffmann und Campe, 1974); Senghaas, "Arms Race Dynamics and Arms Control in Europe," *Bulletin of Peace Proposals*, Vol. 10(1), (1979), pp. 8-19.

복체의 국내적 영향을 들고 있다. 그는 이어서 이들 제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염밀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국가간의 작용과 반작용의 자극은 상대방의 군비증강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만큼 증가할 때에 작용하며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군비경쟁은 상대적으로 국내적 영향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³⁾

한편 북구평화연구의 중심인물의 하나인 테는 현대의 군비증강의 요인으로서 첫째, 국가간의 상호 자극적인 작용과 반작용, 둘째, 자기자극적 현대 군사전략, 세째, 군사기술의 자동적 발전, 네째, 군-산-기술-관료복합체 (Military-Industrial-Technological-Bureaucratic Complex)의 압력 등을 들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현대의 군비증강을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⁴⁾

이러한 군비증강에 관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문제로 되돌아와 보면 한반도의 군비증강은 양 당사국이 각각 상대방의 위협의 증가만을 강조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주장보다는 훨씬 복잡한 모델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번째로 한반도의 군비증강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정치, 경제 및 군사질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로 한반도의 군비증강의 또 하나의 요인은 양 당사국의 작용과 반작용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세째로 앞에서 지적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군비증강의 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국내적 요인들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비증강에 관한 분석은 이제 까지의 단순한 평면적 차원을 벗어나서 세계체제, 남북한분단체제 및 국내체제의 제요인을 포괄하는 하나의 복합모델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실증연구가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국제체제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국내체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요하면서도 국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서 평화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활발해져 가고 있는 제3세계의 군사화 내지는 군국주의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13) Bruce Russett, *The Prisoners of Insecurity* (San Francisco: W.H. Freeman, 1983) Ch. 4.

(14) Marek Thee, "The Dynamics of the Arms Race," in Marek Thee, (ed.), *Armament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Paris: The Unesco Press, 1981), pp. 97-108.

1945년 이후의 현대세계질서 속에서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제3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빠른 군사화추세를 보여왔으며 이는 더 나아가서 군국주의의 가능성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쟁하스 등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국내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이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쟁하스는 제3세계의 군국주의는 기본적으로 주변부 사회구성체의 재생산 동태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시각에서 그는 제3세계에서의 군국주의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지주계급과 매판자본가가 기존질서의 점차 다가오는 변화를 막기 위하여 군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대부분의 발전도 상국가에 있어서 초기의 수입대체산업화는 정치적 분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동원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기존의 주도세력은 힘을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주도세력의 부재로 인한 힘의 공백상태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빈번한 정치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회세력을 억압함으로써 반동적 기능을 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회세력에 동참하게 된다.⁽¹⁵⁾

이러한 사회경제적 접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분석되어지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것만으로 오늘의 제3세계의 군사화 내지는 군국주의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평면적이라는 주장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데나 외버그 등과 같이 “세계군사질서”的 연구를 강조하는 유럽의 평화연구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3세계의 군사화 내지 군국주의의 문제는 이미 쟁하스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현대세계군사질서에 의해서 형성 전개되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은 세계경제질서와 마찬가지로 명백히 세계군사질서가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은 이 질서를 압도적인 군사력을 기

(15) Dieter Senghaas, “Militarism Dynamics in the Contemporary Context of Periphery Capitalism,” in Asbjørn Eide & Marek Thee, (eds.), *Problems of Contemporary Militarism* (London: Croom, Helm 1979), pp. 195-206.

반으로 군사동맹, 군사원조, 무기이전, 군사교육, 군사개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틀 속에서 제3세계의 군사화 내지 군국주의의 형성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틀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또 하녀의 군사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¹⁶⁾

제3세계의 군사화에 관한 연구로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더 나아가 군사화가 가져다 주는 정치의 폭력화, 경제발전의 정체, 사회의 분열, 문화의 저급화, 사회규범의 붕괴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의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째, 국제체제, 남북한 분단체제, 국내체제의 상호작동 속에서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근대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준거를로서 주목할만한 것은 동주 이용희 교수의 현대 한국민족주의 연구이다.⁽¹⁷⁾

그는 민족주의를 「내」나라라고 하는 정치·경제·문화체제의 형성과 고양을 민족·국민이라는 인적인 면에서 정당화하려는 집단의사로 정의하고 이러한 민족주의는 서유럽사에 있어서 근대후기 곧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뚜렷이 나타난 이른바 근대국가체제의 정치적 명분이자 내재적 동력으로서 작동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근대국가체제가 전세계로 전파되어 근대국제정치체제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도 그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민족주의를 모색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한국민족주의의 문제를 동주 이용희 교수는 세계사적인 일반유형이 한국이라는 특수에 있어서 어떻게 개성적으로 표현되었느냐 하는 방식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한국민족주의의 한국적 기

(16) Thee, "Militarism and Militarisation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in Eide & Thee, op. cit., pp. 15-35; Janøberg, "The New International Military Order: A Threat to Human Security," in Eide & Thee, op. cit., pp. 47-74; Ulrich Albrecht, "Militarism and Underdevelopment," in Eide & Thee, op. cit., pp. 106-126; Neo-Marxist로서 흥미있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Martin Shaw, (ed.), *War, State and Society*, (London, MacMillan, 1984).

(17) 이용희, "한국 민족주의의 제문제," *국제 정치논총* 제 6집 (1967), pp. 이용희 저,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 (서울: 서문당, 1977);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동주 이용희 선생 사온학술심포지움*, (서울: 민음사, 1982).

저로서 저항과 생활력, 정권에의 불신, 그리고 자율적인 투쟁력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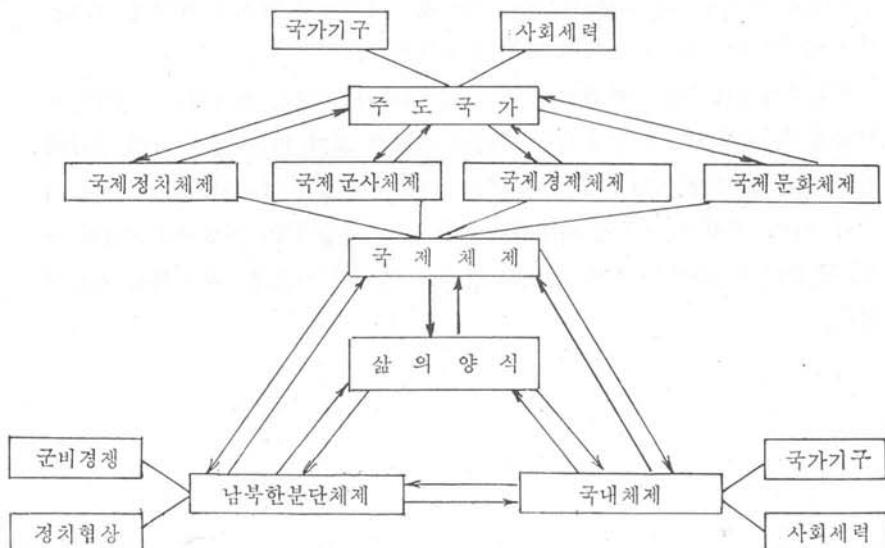
이러한 한국민족주의는 한말로부터 해방에 이르는 동안에는 저항민족주의로서 특색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민족주의는 해방후에 있어서는 그 내부적 발전의 미숙과 담당 지도계층의 미확립으로 인하여 정체에 빠지게 되고 동시에 한민족사회의 자율성은 약해지는 속에서 분단은 고착화되어 갔다.

이러한 속에서 한국민족주의는 저항과 투쟁의 기백을 가지고 타율 속에 자율의 한도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의 새로운 주류로서 국내의 지도계층을 확립하고 이 계층이 그대로 정권의 담당층이 되어 무한한 자율적인 생활력을 지닌 대중의 전진적 저력을 동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이고 나아가서 역사의 뒷바퀴에 그치지 않으려면 탈민족주의시대를 내다보면서 자기를 극복하는 민족주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동주 이용희 교수의 근대 국제정치체제 속에서 한국민족주의의 모색이라는 어려운 작업은 한국국제정치학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첫출발이자 동시에 마지막 도착지점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도식화하여 본다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표 2> 한국 국제정치의 분석틀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초보적 시도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추상화 내지는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새로이 모색되어지는 분석틀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과 연관된 국제정치 문제를 정리하고 풀어나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실학으로서의 한국국제정치학의 정립에 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V. 끝맺는 말

실학으로서의 한국국제정치학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하여 이 글에서는 첫째로 해방이후 지난 40여년 간의 한국국제정치학을 반성하고, 둘째로 한반도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적 체험의 내면화를 통해 한국국제정치학의 당면과제를 밝힌 다음에 세째로 이러한 우리의 국제정치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분석틀의 설정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존연구를 검토하였다.

한국국제정치학은 완제품 수입기, 수입대체산업기를 거쳐 제 3 세계모델 수입기에 들어가 있으나 성급한 기존 분석틀의 원용이전에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 자체로 돌아가서 이에 대한 초보적인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남의 분석시각이나 역사적 체험을 조심스럽게 수용하는 제 4의 시기가 절실히 요청된다.

한국국제정치학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과제는 국제체제, 남북한분단체제 및 국내체제의 상호작동 속에서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근대국가 건설의 모색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이와 관련된 연구인 세계체제연구, 군비확장연구, 제 3 세계군사화 연구, 한국민족주의연구 등의 검토를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분석틀을 시도하였다.

◎ 부 록 ◎

한국 국제정치학 교과서의 목차 비교

저자 서명 출판연도	조효원 국제정치학 1954	이동주 국제정치원론 1955
목차	제 1 편 민족, 국가, 국제사회 제 2 편 세력정치 제 1 장 국력의 기초 제 2 장 민족주의 제 3 장 현상유지정책 제 4 장 제국주의 제 5 장 고립정책과 중립정책 제 6 장 세력균형주의 제 7 장 냉전과 그 테크닉 제 3 편 지난날의 열강 제 1 장 이태리의 외교정책 제 2 장 일본의 외교정책 제 3 장 독일의 외교정책 제 4 장 블란서의 외교정책 제 5 장 로서아의 외교정책 제 4 편 오늘날의 열강 제 1 장 영국의 외교정책 제 2 장 소련의 외교정책 제 3 장 미국의 외교정책 제 5 편 안전보장과 국제조직 제 1 장 신성동맹 제 2 장 국제연맹 제 3 장 국제연합	제 1 부 서론 제 1 장 국제정치현상 제 2 장 국제정치학의 성립 제 3 장 근대국가에의 이해 제 4 장 현대국가에의 지향 제 2 부 국제정치의 정태 제 5 장 국제법 질서 제 6 장 외교제도론 제 7 장 세력균형과 집단안전 보장 제 3 부 국제정치의 동태 제 8 장 힘(권력) 제 9 장 외교정책과 그 실시 (기 1) 제 10장 외교정책과 그 실시 (기 2)
저자 서명 출판연도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 1962	조재권 국제정치학 1963
목차	제 1 부 국제정치 제 1 장 예비적 고찰 제 1 절 국제정치의 개념 제 2 절 국제정치학의 성립 제 2 장 국제정치권의 이론 제 1 절 국제정치권 제 2 절 전파이론	제 1 장 서론 제 2 장 근대국제사회의 성립과 발전 제 3 장 국력 제 4 장 국제사회의 전개 제 5 장 국제사회의 기본원리 제 6 장 국제정치와 외교

제 3 절 역사적 유형	제 7 장 국제 선결
제 3 장 근대적 국제정치에의 경험	제 8 장 대외원조
제 1 절 국제정치에의 경험	제 9 장 전쟁
제 2 절 대외정책의 저변	제 10 장 평화에의 모색
제 3 절 국제정치의 설정	결론
제 4 절 국제정치의 제도화	부록 북대서양조약(영문)
제 5 절 협과 질서	와르샤와 조약(영문)
제 4 장 근대국가의 국제정치사 적 여전	* 1976년 개정판의 목차는 1963년판과 동일함.
제 1 절 근대국가의 역사적 성격	
제 2 절 군사국가	
제 3 절 경제국가	
제 4 절 식민지국가	
제 5 장 국제정치의 자기전개적 인 여건	
제 1 절 군사, 경제, 정치	
제 2 절 국제주의의 요인에 대하여	
* 1980년 중판의 목차는 1962년판과 동일함.	

저자 서명 출판연도	최종기 국제관계론 1966	김상준 국제정치이론 I 1977
목차	<p>제 1부 서론</p> <p>제 1장 국제관계론의 연구</p> <p>제 2장 국제사회의 전개</p> <p>제 3장 국력의 요소</p> <p>제 2부 국가이익증진의 도구</p> <p>제 4장 국가정책도구로서의 외교</p> <p>제 5장 국가정책도구로서의 선전과 정치적 투쟁</p> <p>제 6장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p> <p>제 7장 전쟁</p> <p>제 3부 국가간의 관계의 통제</p> <p>제 8장 협의 균형</p> <p>제 9장 절단안전보장</p> <p>제 10장 국제법의 주요문제</p> <p>제 11장 국제기구의 발전</p> <p>제 12장 군축</p>	<p>제 1장 커뮤니케이션, 사이버네틱스 이론</p> <p>제 1절 커뮤니케이션과 국제정치분석</p> <p>제 2절 사이버네틱스</p> <p>제 3절 거래이론</p> <p>제 4절 커뮤니케이션, 사이버네틱스이론의 평가</p> <p>제 2장 게임이론</p> <p>제 1절 게임이론의 개관</p> <p>제 2절 2인 게임</p> <p>제 3절 n인 게임</p> <p>제 4절 게임이론의 평가</p> <p>제 3장 시스템이론과 국제시스템론</p> <p>제 1절 일반시스템이론</p> <p>제 2절 국제시스템론</p>

한국 국제 정치 학의 새로운 방향모색 45

<p>제 4 부 국가이익의 형성화 제13장 외교정책 제14장 대외원조</p>	<p>제 3 절 현 국제 시스템의 성격 제 4 절 국제 하위 시스템들 제 5 절 국제 시스템론의 평가</p> <p>국제 정치이론 Ⅱ 1980</p> <p>제 1 장 현실주의이론 제 1 절 현실주의이론의 기원 제 2 절 현실주의이론의 평가 제 3 절 힘과 국제정치 제 2 장 억지이론 제 1 절 억지이론과 국제정치 제 2 절 억지이론의 역사 제 3 절 억지의 성격과 속성 제 4 절 홍경, 전략적 움직임으로서의 억지 제 5 절 억지이론의 평가; 성격과 장점 제 6 절 억지이론의 평가; 단점과 문제점</p>																										
<p>저자 서명 출판연도</p>	<p>구영록 인간과 전쟁 1977</p> <p>이상우 국제관계이론 1979</p>																										
<p>목차</p>	<table border="0"> <tbody> <tr> <td style="width: 50%;">제 1 장 서론: 국제정치를 보는 눈</td> <td style="width: 50%;">제 1 장 서론: 국제 관계학에서의 이론</td> </tr> <tr> <td>제 1 부 전쟁으로의 행진</td> <td>제 2 장 카플란의 국제체계이론</td> </tr> <tr> <td>제 2 장 갈등의 단계</td> <td>제 3 장 세력균형이론</td> </tr> <tr> <td>제 3 장 분쟁의 단계</td> <td>제 4 장 집단안전보장이론</td> </tr> <tr> <td>제 4 장 전쟁의 단계</td> <td>제 5 장 오오간스키의 힘의 전이 이론</td> </tr> <tr> <td>제 2 부 전쟁의 방지수단</td> <td>제 6 장 제국주의 전쟁이론</td> </tr> <tr> <td>제 5 장 힘(Power)</td> <td>제 7 장 럼멜의 사회장이론</td> </tr> <tr> <td>제 6 장 힘의 균형체계</td> <td>제 8 장 구조균형이론</td> </tr> <tr> <td>제 7 장 힘의 우위체계: 집단안전보장</td> <td>제 9 장 계임이론</td> </tr> <tr> <td>제 3 부 전쟁의 예방수단</td> <td>제 10 장 국제 나우의 연계이론</td> </tr> <tr> <td>제 8 장 구개연합</td> <td>제 11 장 국가통합이론</td> </tr> <tr> <td>제 9 장 국제통합</td> <td></td> </tr> <tr> <td>제10장 결론: 국제체계의 변형</td> <td></td> </tr> </tbody> </table>	제 1 장 서론: 국제정치를 보는 눈	제 1 장 서론: 국제 관계학에서의 이론	제 1 부 전쟁으로의 행진	제 2 장 카플란의 국제체계이론	제 2 장 갈등의 단계	제 3 장 세력균형이론	제 3 장 분쟁의 단계	제 4 장 집단안전보장이론	제 4 장 전쟁의 단계	제 5 장 오오간스키의 힘의 전이 이론	제 2 부 전쟁의 방지수단	제 6 장 제국주의 전쟁이론	제 5 장 힘(Power)	제 7 장 럼멜의 사회장이론	제 6 장 힘의 균형체계	제 8 장 구조균형이론	제 7 장 힘의 우위체계: 집단안전보장	제 9 장 계임이론	제 3 부 전쟁의 예방수단	제 10 장 국제 나우의 연계이론	제 8 장 구개연합	제 11 장 국가통합이론	제 9 장 국제통합		제10장 결론: 국제체계의 변형	
제 1 장 서론: 국제정치를 보는 눈	제 1 장 서론: 국제 관계학에서의 이론																										
제 1 부 전쟁으로의 행진	제 2 장 카플란의 국제체계이론																										
제 2 장 갈등의 단계	제 3 장 세력균형이론																										
제 3 장 분쟁의 단계	제 4 장 집단안전보장이론																										
제 4 장 전쟁의 단계	제 5 장 오오간스키의 힘의 전이 이론																										
제 2 부 전쟁의 방지수단	제 6 장 제국주의 전쟁이론																										
제 5 장 힘(Power)	제 7 장 럼멜의 사회장이론																										
제 6 장 힘의 균형체계	제 8 장 구조균형이론																										
제 7 장 힘의 우위체계: 집단안전보장	제 9 장 계임이론																										
제 3 부 전쟁의 예방수단	제 10 장 국제 나우의 연계이론																										
제 8 장 구개연합	제 11 장 국가통합이론																										
제 9 장 국제통합																											
제10장 결론: 국제체계의 변형																											

저자 서명 출판연도	박상식 국제정치학 1981	최종기 현대국제관계론 1983
목차	<p>제 1 장 서 론 제 1 절 국제정치학의 대상 제 2 절 국제정치학의 연구방법 제 2 장 현대국제정치체제 제 1 절 현대 국제정치체제의 특징 제 2 절 세력균형체제: 동맹의 형성 제 3 절 공고한 양극체제: 동서 분쟁 제 4 절 이완된 양극체제기: 비동맹 국가 제 5 절 초기적 다극체제: 남북 대결 제 3 장 국제정치의 행위자 제 1 절 국가: 국가권력 제 2 절 지역기구: 지역통합 제 3 절 국제연합 제 4 절 다국적 기업체 제 4 장 국가의 목적 제 1 절 서 론 제 2 절 민족주의 제 3 절 제국주의 제 4 절 신식민주의 제 5 장 국제정치의 실체 제 1 절 외 교 제 2 절 전 쟁 제 3 절 핵전쟁 제 6 장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와의 연계 제 1 절 외교정책 결정이론 제 2 절 외교정책 결정요인 부 록: 국제기구 참가현황 </p>	<p>제 1 편 서 론 제 1 장 국제관계론의 전개 제 2 편 국제관계이론 제 2 장 전통적 이론 제 3 장 체계이론과 국제관계 제 4 장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 5 장 정책결정론 제 6 장 통합이론 제 7 장 상호의존론 제 8 장 평화연구 제 9 장 갈등이론 제 10 장 마르크스주의 세계정치론 제 3 편 국제관계와 분석단위 제 11 장 거시적 분석 제 12 장 행위자 제 13 장 국 가 제 14 장 소국, 개발도상국 제 15 장 국가의 행동 제 16 장 외교정책의 형성 제 17 장 국가간 상호작용의 수단과 기술 제 4 편 갈등과 그 해결 제 18 장 분쟁과 그 해결 제 19 장 집단안전보장 제 20 장 국제법의 주요문제 제 21 장 국제기구의 발전 제 22 장 군 축 제 23 장 자원, 에너지문제 제 24 장 서기 2000년의 지구의 환경 제 25 장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현재와 장래의 제문제 </p>